

민주노총, 한미FTA 저지 총력투쟁 결의

✎ 홍미리 기자 | ⓒ 승인 2011.11.08 18:53

14차중집...민주노총 조직질서 확립방안·정치방침 등 토론



▲ 민주노총이 제14차 중집 회의를 열어 한미FTA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 기조를 전면전환해 한미FTA 저지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8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미FTA 저지투쟁 건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최근 가장 큰 현안인 한미FTA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자고 의견을 모았다.

중집은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와 의제별·부문별대회, 본대회 모두 중심기조에 한미FTA 저지투쟁을 결합키로 했다. 국회 본회의 (11/10·24, 12.4)일에 맞춰 비준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12~13일 전국노동자대회도 한미FTA 국회 비준저지투쟁을 결합시킨다. 민주노총은 12일 저녁 7시 여의도에서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와 함께 하는 한미FTA저지 1차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13일 본대회 직후 6시 서울시청광장에서 2차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

전태일 정신계승 2011년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에 앞서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진행해 투쟁전선을 확산시키고, 13일 본대회를 마친 후에도 수만 명의 조합원이 국민과 함께 하는 촛불투쟁을 전개해 '어게인 2008'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11월24일에는 한미FTA 저지를 위한 전국동시다발 국민대회를 수도권은 국회 앞에서, 지역은 전국 거점에서 연다. 이어 12월3일에도 한미FTA 저지 승리를 위한 범국민대회(민중대회)를 개최하고, 전 지역구 국회의원을 압박하는 농성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범국민본에서 제작 배포하는 동영상은 각 현장에 신속하게 배포해 교육사업을 전개하고, 모든 사업장에 현수막 내걸기, 출퇴근·중식시간 1인시위, SNS 등을 통한 선전홍보에도 나선다. 11월23일을 전국동시다발 집중 선전전의 날로 선정해 집중 캠페인과 선전전을 벌이기로 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99%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처리할 경우 민주노총은 국민과 함께 본격적인 이명박퇴진, 한나라당 해체 투쟁에 돌입한다.

중집은 보고사항에 이어 민주노총 조직질서 확립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 건, 정치방침 관련 건을 상정해 토론했다.



▲ 민주노총은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11 전국노동자대회 기초를 전면 전환해 한미FTA 국회 비준 저지투쟁에 나선다. 사진=노동과세계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